올해는 IMF 등 사회의 경기침체가 불교문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음악회 등 문화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조계종에서 주관하는 불교문학상 공모가 아예 없었고 가을로 예정했던 대규모 불교관현악단인 비사관현악단 창단 기념 대규모 음악회도 취소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올해가 사진영상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불교 사진전을 여느 해보다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불교미술전시회가 꾸준히 이어진 점이 돋보였다.

인물로 보는 '98 불교문화계

사진전등 전시회 꾸준 팔만대장경 음반 나와 불교연극 '느낌…' 호평

◇이강백씨가 극복을 쓰고 이윤택씨가 연출한 '느낌, 극락같은'은 올 연극계에서 주목받은 불교 연극. 사진은 '느낌, 극락같은'의 한 장면.

선암스님(봉원사) 백종하, 김종률, 류영수, 박보하, 이태영씨 등 불교사진작가들은 각자 독특한 주제를 잡아 불교사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선암스님은 연꽃을, 백종하씨는 팔만대장경을, 박보하씨는 우리 시대의 선지식 서옹 혜암 진제 스님을 포커스에 담았다.

이강백씨가 극본을 쓰고 이윤택씨가 연출한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은 올 서울국제연극제에서 작품, 희곡, 연출, 신인연기, 무대예술 등 5개 상을 휩쓸며 침체된 불교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강백씨의 탄탄한 극본에 이윤택씨 특유의 힘있는 연출력에 힘입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느낌, 극락같은'은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두 주인공의 삶을 대비시키며 인생의 참의미를 불교적으로 성찰케 한 연극.

올해는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해인사 장경각으로 이운된 지 꼭 600주년,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음악으로 만들어 발표한 사람은 대중가수며 작곡가인 김수철씨. 김씨는 국악과 서양클래식, 신서사이저 등이 크로스오버적인 기법으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4악장의 음악을 만들어 5월 14일 조계사에서 봉정식도 가졌다.

종립 고려대장경연구소장스님은 11월 국내 최초로 〈고려대장경 해제〉를 펴냈다. 1~3권은 팔만대장경 해제, 4권은 주제어와 저·역자, 대장경 고유번호 등에 따른 세부목록, 5권은 가나다순에 따른 총목록, 6권은 색인으로 구성해 방대한 대장경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불교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작곡가 유승엽씨는 인도토속악기 오카리나를 사용한 선음악 '혜초'를, 김창수씨는 인도명상음악 CD시리즈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또 이성천 박일훈, 이건용, 황병기, 백병동, 김희조 씨 등 국악계의 쟁쟁한 대가들이 차를 주제로 한 '다악(茶樂)' CD를 펴 냈다. 한편 박범훈, 안숙선 씨 등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 윤이상통일음악제에 참여해 남북문화교류에 이바지했다. 박범훈 교수(중앙대 작곡과)는 또한 민족의 독립과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의 삶과 사상을 국악교성곡으로 만든 '용성'으로 호평을 얻었다.

중견작가 박태순씨는 원효를 주제로 방대한 대하소설 집필에 들어갔고, 정찬주씨의 성철스님을 소재로 한 소설 〈산은 산 물은 물〉은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한승원, 박일문, 백금남씨도 각각 불교를 주제로 한 소설을 발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불교관련 전시회가 꾸준히 열려 시름에 찬 불자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정비파씨는 경주 석굴암내 38위 불 보살상의 질감과 골격을 그대로 재현한 대형 목판화전을 가졌으며 전남도 무형문화재 탱화장 31호 고재석스님은 탱화인생 60년을 회향하는 첫 불화전을, 양주혜씨가 반야심경을 소재로 설치미술전, 김호석씨는 성철스님 다비식을 화폭에 담았다. 수안·주일·성각·성호 스님은 자연과 달마를 소재로 한 선화전을 가져 불안과 초조에 싸인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동승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은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순회전을 가져 천진불심의 미소를 세계인의 마음에 심었다.

한편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칠지불'의 작가 상기호씨는 고려시대 이후 맥이 끊겼다는 건칠지불을 재현했다는 공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아 결국 11월말 통도사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잡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선암스님 ◇원성스님 ◇박범훈교수 ◇정찬주씨 ◇이윤택씨 ◇김수철씨

불심시심 〈156〉·끝

달빛에 시정도 상쾌해

雲葉離離蠶後天 (운엽리리제후천) 구름 잎 드문드문 비 갠 뒤의 하늘
風光澹蕩鬱欄邊 (풍광담탕화란변) 풍광도 맑고 맑은 단천 난간의 갓
繞窓淸澗初聽瑟 (요창청간초청슬) 창을 두른 맑은 새내 처음 듣는 비파이고
近水高樓若泛船 (근수고루약범선) 물 가까운 높은 누대 떠있는 배 같구나
楓樹嫩黃輸客興 (풍수눈황수객흥) 단풍나무 연한 누르름 나그네 흥 실어오고
桂林瀟灑重仙緣 (계림소쇄중선연) 계수나무 숲 시원스레 신선 인연 거듭하다
新晴月色金沙淨 (신청월색금사정) 새로 개인 달빛 금모래도 깨끗해
更覺詩情倍爽然 (갱각시정배상연) 시의 정서 배나 상쾌함 다시 깨닫다.

함흥대사의 '가을 비 개다(秋雨新晴)'한 시이다. 맑게 개인 가을의 풍경을 시인의 안목으로 그려낸 것. 창 밖의 새내 울림을 비파소리로 듣고 높이 솟은 누대를 가을 물결 위에 떠있는 배로 이해하고 있다. 담담한 가을 물색을 시인의 상상으로 환치시키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학의 울음을 경전을 외우는 소리로 미화시키더니, 여기서는 시냇물 소리를 비파 소리로 듣고 있다. 무정물을 유정화시키는 전형적 솜씨이다. 하기야 인간의 솜씨로 만들어진 소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따를 수 있겠는가. 물소리가 세상의 비파보다 나은 것은 당연하다. 그저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흔한 일이기에 무심히 여겨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세속 삶의 어리석음이겠지.

누대 주변에는 단풍 잎에 연하게 물든 누르고 붉음이 나그네의 흥을 실어오고(輸) 있다. 흥을 듬뿍 실어다 부쳤다. 누대가 물 위에 떠있다 함도 평상인의 범상한 생각으로는 그리 쉽게 떠오르는 공간 감각이 아니다. 누대라면 산이 공간이고 배라면 바다가 공간이다. 이 어울릴 수 없는 공간을 한 곳으로 몰아왔다. 물에 가깝다는 배경설정이야 있었지만, 그래도 시인의 상상적 공간구성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못하다.

스님은 철저하게 시인이다. 이러한 가을 경치에서 시상이 떠오름은 역시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 시정을 돋우기 위해서 맑게 떠오르는 달이 매개물이 되었지만 결론을 배나 더한다는 시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역시 시인으로서의 자연 애호와 감상의 바른 안목에서 오는 것이다. 금모래란 표현이 스님의 언어 선택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라 해도 무방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 전통석탑 채색됐다"

동국대박물관 박홍국연구원 주장

한국의 전통석탑은 채색석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의 박홍국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 석조탑상의 채색론'(〈한국 전탑의 연구〉에 수록)에서 석불 및 석탑이 채색되어 있다고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연구원은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의 옥개석에 남아있는 회칠 △경주 서악동 3층석탑의 탑신에 새겨진 인왕상 입술에 남은 붉은 색 흔적 △석탑에 다양한 사천왕상등 다양한 부조상이 조각되어있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나 조각이 없는 석탑은 그림을 그려 넣었을 것이라는 추정 △경주 무장사지 3층석탑이나 칠곡 기성동 3층석탑에는 조각없는 안상만 있는데 이는 조각 대신 그림을 그려넣었을 것이라는 추측 △탑의 옥개석 아래면에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 돌기도 결과적으론 탑신에 그려진 색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경주 남산 배리석불입상의 좌우 협시보살의 광배 △경주 선도산 마애불 △충북 괴산 원풍리 마애불에 남은 회칠 흔적 △서울 북한산 마애석가여래좌상 입술 △불국사 다보탑 석사자의 채색 흔적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탑신의 인왕상 입술의 붉은색 등을 채색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는 "한국의 석탑이 채색되었다는 주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며 "탑에 장식이 달렸다거나 하는 것은 있었지만 채색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명상음악 들으며 문화강좌

광주 티벳밀교전시관서 1월5일~3월말

광주 전일빌딩 5층 티벳 밀교예술전시관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위한 명상음악 감상 및 문화강좌를 새해 1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3회(화 목 금 오후 2~4시)씩 3개월간 개최한다.

강사와 강좌는 티벳스님인 쵸펠스님이 '티벳 정신문화와 예술세계' '죽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현장스님(보성 대원사 주지)이 '인도명상음악 해설과 감상', '선체조와 건강기공', 김범수씨(전남대 동양미술 강사)가 '인도 티벳 미술의 회화기법' '동양미술사 개론' 등이다. 12월 30일까지 접수마감. 선착순 50명. (062)222-1165

'월간 여래' 창간호 나와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불교전문잡지를 표방한 월간 〈여래〉(발행인 김나효)가 21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월간 여래〉는 명찰과 고찰 안내는 물론 사찰 불사 및 포교 불사에 전력하고 있는 스님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재가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알림으로써 현시대에 맞는 불교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동체대비의 실현'을 주제로 서옹스님(백양사 방장)의 휘호 및 법어와 함께 박석교수(상명대)의 '21세기 문명의 대전환과 불교의 미래' 기고문, 36년간 절 짓는 일 한 길만 걸어온 장창원씨 등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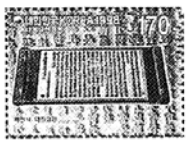
이밖에도 사회, 연예계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불교적 시각에서 폭넓게 다뤘다. 값 5천5백원.

화제의 전시

한국불교미술전

한국불교미술협회는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관훈동 다다갤러리에서 제9회 한국불교미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창균 강순형 조성호 박병희씨 등 회원 21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02)735-8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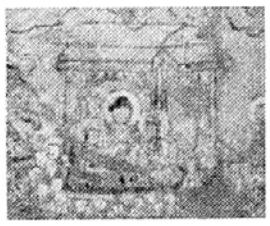
대장경판-장경판전 우표



정보통신부는 해인사 대장경판과 판전을 도안한 세계유산등록 특별우표 2종을 발행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한 특별우표는 전국 우체국에서 발매하며 대장경판 우표〈사진〉는 170원, 판전은 380원.

조선불화 2점 경주대에 기증



신라역사과학관(관장 석우일)은 개교10주년을 맞는 경주대학교에 최근 반야용선도(般若龍船圖)〈사진〉 1점과 나한도(羅漢圖) 1점을 기증했다. 이들 벽화는 특이한 도상(圖像)과 색채 등이 뛰어나 조선시대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반야용선도는 왕생자를 아미타부처가 주재하는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삼존과 그 왕생자를 태운 용선을 묘사한 그림이다. 나한도는 몸은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풀방석에 앉아 명상에 잠긴 나한의 모습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야용선도는 두루마리 그림과 19세기 통도사 벽화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거의가 19세기 이후에 조성된 벽화여서 이번에 기증된 벽화처럼 18세기 유물로서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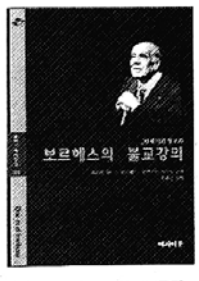
기증된 벽화는 18세기 조선시대 불교벽화로 보존처리된 후 경주대 박물관에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벽화는 86년 경남 김해시 서림사 중수 공사 때 벽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석우일관장이 파손 직전에 벽화부분만을 해체 복원하여 보관해 온 것이다.

강지연 기자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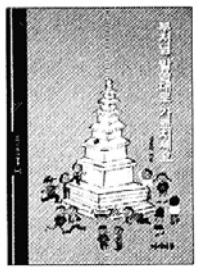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1-교리 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시아 후리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1쪽/값 5,500원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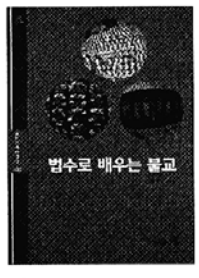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스님 편역 / B6 변형/ 176쪽/ 값 4,000원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502-문화 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대기설법. 바로 '인간 존중의 교육관'이 오늘날에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교리 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 그리고….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501-문화 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근본 교리인 무아설(無我說)에 의하면 영혼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여래장 사상은 무아설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의문들을 말끔히 씻어준다.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401-문학편
허공의 딸꾹질
이 책의 특징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종찬 교수의 유려한 해설이다. 20년 가까이 선시연구에 전념해 온 이교수의 선시 해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시어를 다시 창출하고 있다.
이종찬 지음/ B6변형 282쪽/ 값5,000원